

POLITICS

2025년 4월 29일 화요일

“노사 상생·지속 가능 노동시장 역량 집중”

전남도, 산사태 재난대응

주민대피 시스템 점검

전남도는 28일 장흥을 연산리 일원에서 실제 산사태 발생 상황을 가정한 주민 대피 훈련을 해 실전형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점검했다.

훈련에는 명장한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마을주민, 경찰, 소방, 산림청 국립관리소, 치산기술협회 전남지부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훈련이 이뤄진 장흥읍 연산리 일원은 지난해 9월 제14호 태풍 ‘폴라산’이 몰고 온 많은 비로 산사태가 발생한 곳이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민가 뒤 사면이 붕괴돼 창고와 농기계 등이 파손됐다.

주민대피 훈련은 산사태 예측정보 수신,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 대피명령에 따른 전담체계, 상황별 실제 주민대피, 산사태 응급복구, 산사태 예방교육과 훈련 강령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재난 위험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해 주민의 자율적 대피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며 대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대피 거부자의 강제 대피를 위해 소방과 경찰도 훈련에 함께했다.

또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가 민가를 덮쳐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설정해 장흥군산림조합과 국립관리소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응급복구하는 상황을 시연했다.

상황별 대피를 완료한 주민을 대상으로 전남도의 ‘재난안심꾸러미’를 1인당 1세트씩 배부했다. 이는 지난해 재난상황에서 대피에 따른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명장한 행정부지사는 “유관기관 합동 훈련을 통해 산사태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계기가 됐다”며 “산사태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gwangnam.co.kr

전남농기원, 영광 낙월도에 ‘꿀벌 육성품종 증식장’ 개소

전남농업기술원이 기후변화로 대규모 꿀벌 실종 사태 등 위기에서 꿀벌산업을 한 단계 더 높이 도약시킬 준비를 마쳤다.

28일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이날 전남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에서 장제일 영광군수와 정용재 한국양봉협회 전남지회장, 방해선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장, 오미화 전남도의원, 꿀벌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식장 개소식을 개최했다.

국비와 도비 24억원이 투입된 꿀벌 증식장은 전남 환경에 적합한 꿀벌자원의 증식·보급을 위한 연구시설로 양봉사와 관리동, 분석실 등을 갖춘 386㎡ 규모다.

영광 낙월도는 봉군(벌 무리)이 없고, 꿀을 모으는데 필요한 밀원식물이 풍부해 꿀벌 품종의 유지·관리에 제격이다. 올해부터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신품종 여왕벌 켈리킹을 받아 교배·증식 후 양봉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켈리킹은 재래종 꿀벌 대비 로열젤리 함량(10-HDA)이 31.3% 높다.

김행란 전남농업기술원장은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 개소는 전남 1호 여왕벌 생산을 위한 첫걸음이다”며 “올해 고품질 로열젤리 생산 켈리킹의 농가 공급을 시작으로 전남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은 전국적으로 영광 낙월도뿐만 아니라 충남 보령 삼시도, 경남 통영 사량도, 군산 연도, 진도 가사도 등 5개 지역에 조성되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gwangnam.co.kr 영광·정규필 기자 ykigp98@gwangnam.co.kr

광주 노사민정, 노동절 행사서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

광주형 일자리·노동환경 개선·지역경제 활성화 ‘한뜻’

광기정 광주시장은 노동절(5월1일)을 앞둔 28일 “지난 135년은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의 역사가였다”며 “그 노력을 통해 우리는 헌법적 가치를 찾을 수 있었다. 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모든 분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광 시장은 이날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대

강당에서 열린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광주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지지하고 싸워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 시장은 이어 “광주노동인권센터의 문을 열어 노동약자 보호와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다”며 “노동존중의 사회로 함께 뛰쳐나가자”고 밝혔다.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광기정 시장을 비롯해 박병규 광산구청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장 등 노동계·시민사회 관계자 300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광주 노사민정은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시교유청, 한

국노총 광주지역본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경제진흥공사, 광주노사민정대표 8명은 “국내외 경기 침체 영향으로 수출과 내수 동반 부진 등 노사민정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는데 생각을 같이한다”며 “비상한 각오로 노사상생도시 광주형일자리를 토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미래세대를 위한 상생과 연대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또 광주형 일자리의 지속가능

성과 정의로인 산업 전환, 노동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뜻을 함께 했다.

이날 노동절 기념행사에서는 광주광역시 표창 20명 등 총 44명의 모범 조합원들이 표창을 받았고, 근로자 자녀 장학증서 수여도 진행했다.

한편 광주시는 노동절을 앞두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도시 광주’를 실현하고 노동절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광주시청사 개양대에 한국노총 깃발을 게양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주시 활동 해설사 역량강화 통합교육. 광기정 광주시장은 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시 활동 해설사 역량강화 통합교육'에 참석해 해설사들과 함께 '2025 광주방문의 해' 성공 계획을 다짐했다. 사진제공=광주시

전남 친환경 병원선 건조 착수...내년 6월 완공

현대화된 190t급...섬 주민 의료서비스 향상 기대

전남도가 23년간 전남 서남해 섬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오고 있는 병원선 ‘전남 512호’를 친환경 병원선으로 대체 건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삼원중공업 대회의실에서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병원선 담당자와 관련업체인 가온데 ‘병원선 전남512호’ 대체 건조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현재 운영중인 전남512호는 2003년에

건조돼 6개 시·군 90개 도서 약 5000여명의 건강을 지켜오고 있는 병원선 ‘전남 512호’를 친환경 병원선으로 대체 건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선박 노후화(선령 23년)가 이어지면서 이용객 불편과 안전성 저하 및 해마다 선박 수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건조비 141억원(국비 94억원·도비 47억원)을 들여 2026년 6월말 완공을 목표로 대체 건조에 들어갔다.

새로운 병원선은 서남해안의 낮은심과

조종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워터제트 추진기를 장착하고, 정부정책에 발맞춰 친환경 하이브리드 장비를 탑재한다

기존 170t급보다 20t 증가한 190t급으로 전장43.7m, 폭7.4m, 길이3.3m, 최대속력 17노트(시속31km), 최대44명까지 승선할 수 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병원선을 대체 건조하게 되는 삼원중공업 현장을 둘러보고, 업무담당자들에게 “섬 주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최적의 병원선을 건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렬 기자 holbu@

동북아LNG허브터미널 개발 PF대출 체결

1조1000억 규모...10개 기관 대주단 참여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선정사업 최대 규모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대표 안영훈)은 동북아LNG허브터미널 개발사업을 위한 1조1000억원대 규모의 프로젝트금융(PF) 대출약정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PF 대출약정에는 금융조선기관인 신한은행을 비롯해 대주단으로 지역활성화펀드, 중소기업은행 등 10개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한국산업은행 등과 출자해 설립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선정사업 중 최대 규모이자 최초로 PF대출 약정까지 체결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역활성화 특별PF보증을 통해 상환안정성을 확보해 PF 대주단의 참여 호응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BS한양, GS에너지 및 전남도, 여수시가 출자한 동북아 LNG허브터미널 개발은 전남도 여수시 모도 일대에 총 사업규모 약 1조4000억원을 투자해 20만㎡급 LNG 저장탱크 3기와 배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7년말(1.2호기)과 2028년말(3호기) 상업운전 개시해 2029년 3월 종합준공을 목표로 건설이 진행 중이다.

터미널이 완공되면 연간 300만톤의 대규모 LNG 공급이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대표 안영훈)은 28일 동북아LNG허브터미널 개발사업을 위한 1조1000억원대 규모의 프로젝트금융(PF)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가능해 여수국가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다수의 에너지 기업 등이 주요 수요처를 이룰 전망이다.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 관계자는 “LNG복합발전, 집단 에너지사업, LNG병기사업 등 다양한 수요처에 LNG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물류, 금융, LNG 트레이딩 등 LNG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중심지를 구축해 LNG 시장의 중심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민주화운동명예수당 6월부터 신규 지급

도, 160여명 매월 6만원

전남도는 민주화에 헌신한 도민을 예우하기 위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오는 6월부터 매월 6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생계가 어려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생계지원비를 지급했으나 민주주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송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신규 지급키로 했다.

수당은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이며 전남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신

청할 수 있지만 생계지원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이 안 된다. 현재 전남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160여명이다.

전남도는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수막, 포스터,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전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분증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을 지참해 신청하면 매월 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 육성 장학생 1003명 모집...내달 9일까지

전남인평원 누리집 등서 접수

전남도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실질적 교육 기회 보장과 미래 인재로의 성장·정착 지원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전남인재육성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5월 9일까지이며,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www.jntle.kr)이나 주소지 시·군·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평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후견인)가 1년 이상 전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초·중·고·대학생이다. 특별경력 장학금은 대학원 생도 지원 가능하다.

선발 분야는 전남인재 장학금, 전남정착 장학금, 특별지정 장학금 총 3개의 분야 15종이며, 장학생 1003명에게 장학금

11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전남인재 장학금은 상반기에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남도 장학금, 사회적 배려 계층을 지원하는 기회균등 장학금 등 총 6종, 3999명을 지원한다.

전남 정착 장학금은 상반기에 SK E&S 전 취업준비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5월 9일까지이며,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www.jntle.kr)이나 주소지 시·군·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평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후견인)가 1년 이상 전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초·중·고·대학생이다. 특별경력 장학금은 대학원 생도 지원 가능하다.

선발 분야는 전남인재 장학금, 전남정착 장학금, 특별지정 장학금 총 3개의 분야 15종이며, 장학생 1003명에게 장학금 11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전남 정착 장학금은 상반기에 SK E&S 전 취업준비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5월 9일까지이며,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www.jntle.kr)이나 주소지 시·군·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평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후견인)가 1년 이상 전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초·중·고·대학생이다. 특별경력 장학금은 대학원 생도 지원 가능하다.

선발 분야는 전남인재 장학금, 전남정착 장학금, 특별지정 장학금 총 3개의 분야 15종이며, 장학생 1003명에게 장학금 11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박정렬 기자 holbu@gwangnam.co.kr

광주시, 상반기 고흥사랑기부 답례품 공모

관광·맛집·체험 등 참신한 상품 발굴...내일까지 접수

광주시는 관광·맛집·체험 등 광주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고흥사랑기부 답례품을 찾기 위해 30일까지 '2025 상반기 고흥사랑기부 답례품과 공기업체 모집 신청'을 받는다.

광주시는 지난해 기준 14개였던 답례품을 62개로 대폭 확대, 모음액(3억6000만원)이 약 3배 증가함에 따라 올해 공모에서도 분야별 답례 품목을 다수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2025 광주 방문의 해'와 연계해 관광 서비스, 대표 맛집, 체험 등 다양한 답례품을 통해 기부자가 광주에 머무르며 광주의 다양한 맛과 멋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응모 자격은 광주에 사업장을 둔 생산·제조·서비스 업체 등으로, 고흥사랑기부 제 취지에 맞는 품목을 제안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일정과 신청 방법은 광주시 누

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답례품과 공기업체는 '광주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답례품의 지역 연계성, 상품 우수성과 공기업체의 지역 내 정착도, 신뢰도 등을 반영해 평가한다.

추가 선정된 답례품은 5월 중순부터 제예시도 분야별 답례 품목을 다수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2025 광주 방문의 해'와 연계해 관광 서비스, 대표 맛집, 체험 등 다양한 답례품을 통해 기부자가 광주에 머무르며 광주의 다양한 맛과 멋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